

실적株 중심의 순환매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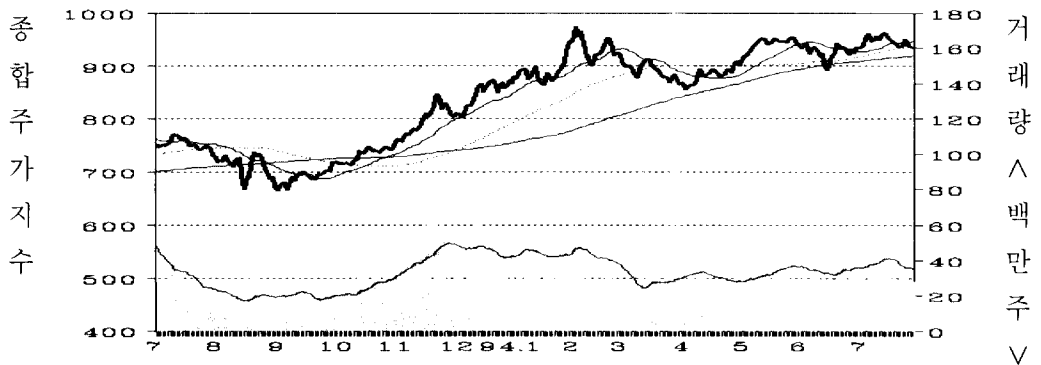
姜千模*

김일성 사망 충격 미미

7월 중순 주식시장은 김일성 북한 주식 사망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가 960포인트선을 돌파하여 연중 최고치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일부 작전설이 나도는 종목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사정과 투신사의 韓銀 특유 상황에 대한 심리적 불안 및 시중 자금 사정 악화에 따른 금리 상승여파까지 겹쳐 주가지수가 다시 930 포인트대로 하락하였다. 中低價 및 大體 우량株가 금번 주식 시장의 하락세를 주도하였다.

약세 지속 예상

8월은 매매 심리를 위축시키는 몇가지의 악재가 장을 지배하면서 주가지수의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증시를 위축시키는 악재로서는 우선적으로 통화 계수를 의식한 정부의 통화 긴축 예상과 이에 따른 시중 금리의 상승 및 8월중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UR 비준이다. 또한 8월 10일 총 2조 1,500억 원에 이르는 투신사의 한은 특유 상황도 주식시장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양대학교 경제학 석사, 국제금융 전공.

금리와 주가의 상관성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정부의 통화 긴축 정책에 의해 시중자금사정이 경색되고, 이에 따라 콜금리는 19%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통화 긴축 기조가 일관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추진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금리와 주가는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인다. 금리의 상승은 시중 유동성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증시 자금의 감소로 연결된다. 이는 곧 증시 침체를 의미한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지난 2월 초 금리 수준이 가장 낮았던 (11.75%) 시기의 종합주가지수가 974.26포인트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최근 시중 금리의 상승과 함께 주가도 하락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금리와 주가는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최근 금리의 상승은 증시 자금 수급악화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수급악화를 역전시킬 수 있고 호재의 존재유무가 향후 장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러한 호재가 발생할 것인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실적株 중심의 순환매 예상

최근 주식 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일부 실적 호전주 및 材料株 등을 중심으로 매기가 단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관련 종목군의 집단 상승이 빈번하게 눈에 띈다. 이는 장기 상승 추세에서 조정 기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8월의 주식시장이 약보합세로 예상됨에 따라 주식 포트폴리오도 비교적 보수적인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과 같은 약세장에서는 지난 수개월 동안 주식시장을 주도해 왔던 자산주 및 우량주(Blue Chip) 등이 쉽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 종목은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라는 최대의 호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약 1/3 정도는 유지해야 할 것이다.

8월 한달동안은 수급 불안에 의해 일부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등락하는 순환매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8월 15일 半期결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개별 종목중에서도 시장 테마는 주로 “실적주”가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금년도 실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포트폴리오 편입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